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영 찬

2015년 8월

<국문초록>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영 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심리적응,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 21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309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 18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심리적응,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낮췄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과 사회적응(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을 높이고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낮췄다. 하지만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사랑, 위로, 애정, 관심 등 정서적 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검정고시에서 불합격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가설	5
4.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8
2. 감정고시	14
3. 사회적 지지	15
4.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측정도구	24
3. 자료처리 및 분석	27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28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9
3.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1
V. 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38
2. 결론	40
참고문헌	42

Abstract	49
부록	51

표 목 차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	21
표 III-2.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23
표 III-3. 심리·사회적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	25
표 III-4.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	26
표 IV-5. 특정변인의 기술 통계량	29
표 IV-6.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 변인간 상관분석	30
표 IV-7.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1
표 IV-8.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32
표 IV-9.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33
표 IV-10.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34
표 IV-11.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35
표 IV-12.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36
표 IV-13.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경험하고, 인간의 전생애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전환점의 시기이다(유지선, 2007).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의존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바람직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홍봉선, 남미애, 2013).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규 교육과정인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매년 6~7만명이 발생하고 있다. 학업중단률의 연간 통계량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00년 1.0%, 2009년 0.8%, 2010년 1.0%, 2011년 0.9%, 2012년 0.9%, 2013년 0.8%의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2.5%, 2009년 1.8%, 2010년 2.0%, 2011년 1.9%, 2012년 1.8%, 2013년 1.6%의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15). 학업중단 통계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2배 이상의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초등학생 15,908명, 중학생 14,278명, 고등학생 30,382명, 총 60,568명의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통계서비스, 2015). 무한한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탈락되는 수가 매년 6~7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업중단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학교를 중퇴함으로써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업중퇴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현선, 2003). 2011년 남기곤은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의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8천1백만 원의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6백2십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부족으로 인해 다른 청소년들보다 적은 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인증된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인정받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정규석 외, 2000; Catterall, 1987; Chavez et. al., 1994). 또한 범죄율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이 23.1%로 일반 청소년의 범죄비율 0.7%와 비교하여 23배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범죄백서, 2011).

국가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국가생산력 손실, 조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경비증가, 사회참여 감소와 무관심, 사회범죄의 증가, 직업안정의 파괴, 세대 간 교류감소, 문화단절 등과 손실을 초래한다(성윤숙, 2005; Rumberger, 1997). 이와 같이 학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1996년 9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복교를 통한 학력취득을 돕기 위해 ‘신학기 복교 추진정책’과 ‘대안학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성적 및 입시 위주의 학교운영방식, 복교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 복교 전 사귀던 친구들의 유혹, 학교의 지나친 규제나 단속으로 인한 어려움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불만으로 결국 낮은 호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01; 박미정, 2004; 장원영, 2003; 태영철, 2004; 한준상, 1997).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부의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대신 그들의 갈등과 불만을 감소시키면서 학력 성취에 대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고등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수는 2009년에는 69,922명, 2010년에는 71,828명, 2011년에는 75,229명, 2012년에는 69,844명, 2013년에는 72,1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고입 검정고시 합격률은 35.9~58%로 평균 45.56%의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

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의 요인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고(45.2%),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예방대책 연구가 뒤를 이었다(33.9%),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가 8.1%, 학업중단 유형 및 특성연구가 6.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4.8%이었다(김영희, 허철수, 2012).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학업중단에 미치는 요인, 학업중단 원인,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연구주제로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중 적응에 관한 연구는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등 학업중단 상태에 대한 적응 혹은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를 하는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등이었다. 즉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가 아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하고자 노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위축감으로 나타났다(윤철경, 류방란, 2010).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회피적 반응,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통제 불능감이 있었으며, 우울이나 자살충동 등도 보고되었다(오혜영 등, 2011).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기까지 부딪치는 사회문제를 잘 극복하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한 가지 입장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견해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이상원, 2004).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수정하여 더 적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위축, 우울·불안(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박진아, 2001) 스트레스의 감소(Fagg et al, 2007),

내면화 문제 및 공격성(심승원, 2000;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정경택, 2003; 하영희, 2004)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건강과 심리적 만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주게 된다(심민경, 2001; 이영자, 1994; Thits, 1982). 즉,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그 사람의 정서적 불균형은 완화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 교사, 친구 등의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로,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Nolten, 1994). 최미숙(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긍정적 상호작용경험을 확장하도록 돕는 기초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Kesser, Price와 Wortman(1985)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관심, 이해, 도움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Sarason & Levine, 1983).

본 연구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서 보이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고찰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및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및 그 하위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과 사회적응(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 및 장·단기적 개입,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가설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응 영역인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응 영역인 우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응 영역인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응 영역인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사회적지지, 심리·사회적 적응,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란 스스로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의사소통 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변인을 Thoits에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세 개의 하위변인은 첫째,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 그 자신이 사회 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 둘째,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속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조언, 지식 등을 의미하는 인지적 지지(정보적 지지).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 재화와 용역의 물질적 지지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는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이란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자극에 대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한다(김신희, 2008; 손지현, 1999). 본 연구에서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1991)가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에서 12~17세 청소년용으로 발전시킨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 하은혜, 이경렬, 홍강의(2001)이 한국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위해 수정 개발한 척도로 총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모든 청소년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진학준비 청소년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 청소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발달적이며 자기를 실현하려는 건강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서정아, 권혜수, 정찬식, 2006).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도 탈락자, 중퇴생, 학업중단 청소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주관하는 영역에 따라 학업중단 또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기 이들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도탈락자와 중퇴생은 1990년대 중반 교육부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이탈 현상” 이라고 정의된다(교육부, 1996). 이 단어들은 낙오나 탈선, 퇴출을 연상시키며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줄뿐 아니라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인상을 준다(이병환, 2002; 최협 외, 2004).

1990년대 말에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업중단’ 이라는 용어가 ‘중도탈락’ 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었다(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업중단’ 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도탈락’ 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피동성과 모호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이병환, 2002).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는 공식적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명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학업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은

학교를 떠난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 밖에 존재하는 근로청소년,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들을 총칭하기 위한 용어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금명자, 2008).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국가차원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4년 5월 28일에 제정, 2015년 5월 29일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이 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최근 제정된 법제처의 정의를 참고하여 학업의 중단 유무와 관련 없이 정규 학교 과정에서 벗어난 모든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원인 및 유형

학업중단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배영태는(2003)는 103여개, 구본용과 유제민(2003)은 150여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이것들 중에서 100여개의 변인들을 크게 나누어보면, 유성경 외(1998)는 가정배경 관련 요인, 지역사회 및 사회제도 관련 요인을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범주로 Bhaerman & Kopp(1988)는 학교 중퇴의 원인들로 학업과 관련된 요인, 행동적 요인, 가정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로 분류하고 있다.

윤여각 외(2002)는 학업중단의 이유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정에 대한 불만 유형, 경제적 빈곤유형, 학교 안 인간관계의 불만족, 교과공부에 대한 어려움, 교칙위반 등의 비행유형, 건강악화, 조기유학이나

이민이다. 이들은 일곱 가지 유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변인끼리 영향을 미치며, 단계를 구성하는 흐름을 나타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명자(2008)도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 군을 개인, 가정, 학교, 교우, 지역사회 군들로 구분하였고, 이들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서 학업중단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신현숙·구본용(2002)은 중퇴는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중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중퇴 관련변인들이 행동적 범주(예, 결석, 징계, 저조한 학교활동 참여), 심리적 범주(예, 낮은 포부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정서문제), 학업적 범주(예, 학습부진), 사회경제적 범주(예,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결손가정), 환경적 범주(예, 임신, 아르바이트,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 등 학교 공부와 병행되기 어려운 상황)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상에서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에는 청소년의 개인적 원인은 물론 가정, 학교 등 사회환경적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학업중단을 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단순히 한 가지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조아미, 2002). 그러므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 유형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먼저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사례연구를 통한 중도탈락생의 사회적응 연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과 현재 상태에 따라 학업중단 유형을 정착 노력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정착 노력형은 복교,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진학청소년,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정착한 경우를 건전 직장 취업청소년, 사설 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를 취업준비 청소년으로 유형화 하였다. 비정착형으로는 범죄연루 후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 등으로 병원 및 요양기관에 수용되어 요양 중인 청소년, 중퇴 후에 진학과 취업준비의 부재, 폭력 등 다양한 비행행동에 따른 방치된 청소년, 단란주점과 술집 등에 취업중인 유흥업소 취업청소년, 가출하여 소재가 불투명한 가출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는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향후 계획을 조사하여 순수진학형, 아르바이트형, 취업형, 진로미결정중심형, 기타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학업을 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규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순수진학형,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생각보다는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려고 하는 유형을 취업형으로 제시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로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할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겠다는 아르바이트형,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한 진로미결정중심형, 기타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주영신(2007)은 중퇴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중퇴이후의 과정을 돌파구 모색형과 불만족 안주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중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또래·지역사회의 지지 속에서 관계가 변화되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형을 돌파구 모색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적응과정을 위해 어떠한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고, 현재가 힘들고, 어디서 돈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적응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가족·친지·또래·지역사회의 지지 속에서 관계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지원 받으려고 하지 않는 등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떤 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반응하는 불만족 안주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윤철경(2010)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학습형, 취업형·알바형, NEET형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NEET형을 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어떤 형태로든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학습형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만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학습형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취업·알바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학습도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을 NEET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는데 따로 하는 일없이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는 노는 NEET 배회형, 집 또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NEET 은둔형, 부모 일을 돕거나 가끔 일도 하면서 주로 놀거나 기타일로 소일하는 NEET 소일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모든 생물이 외부 환경과의 끊임없는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데, 사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적응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처해야 하고, 주변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적응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적응에는 가정, 학교, 사회적응과 건강유지, 경제문제, 인격적 적응으로 인성 및 인생관 확립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적응보다 더 어려운 적응과제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김지현, 2009).

적응이란 인간과 환경간의 적합성을 지향하는 과정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어 나갈 때 내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간의 개인적 요소들과 환경적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또는 그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손지현, 1999).

심리사회적 적응이란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자극에 대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한다(김신희, 2008; 손지현, 1999). 즉, 잘 적응된 상태란 개인이 늘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요구와 바람을 적응적으로 충족하거나 조절하여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좌절감과 불안감 없이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신희, 2008; 이해련, 1999; 장연정, 2002).

반면에 Cicchetti와 Toth(1991)는 심리사회적 적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 상태를 부적응 및 정서적 행동장애로 보았다(Meyer, 1983; 임세민 2014 재인용).

Achenbach(1991)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세 차원으로 설명한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 사고력 문제, 주의집중 문제 등의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고 과잉통제된 행동으로 정의하고, 외현화 문제는 비행행동, 공격행동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현화 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역량은 사회행동, 학업수행, 사회활동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이정희, 2007 재인용).

오혜정(1995)은 적응이란 인간이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윤여상(1994)은 심리적 욕구와 사회 환경 간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회적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심리적응은 Kazdin(1993)이 말하는 정신건강의 유능성 모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이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 규범, 역할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회적 활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의미하며 어떠한 스트레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일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Lazarus, 1976). 즉 심리적 적응은 개인 내의 정신 건강과 유사한 개념이며, 사회적 적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욕구를 만족시키고 조절해가는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생활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사회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하고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응(비행, 공격성)을 통해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검정고시

가. 검정고시의 개념

검정고시(檢定考試)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자격과 그 자격에 필요한 지식·학력·기술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고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와 교육부 규칙으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검정고시의 시작은 광복 직후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실시한 것이 효시를 이룬다. 당시 독학하는 사람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진학의 기회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연 2회 문교부에서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중앙위원회를 두고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9개 대학교에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대학교위원회를 두어 실시했다.

현재 검정고시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해(당연직) 자치법규와 방침에 의해 시행하며, 매년 4월, 8월에 각 시·도 교육청이 연합해 공동으로 시행한다(위키백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둘째,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셋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넷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소외 계층)이나 학업도중 중도에 이탈하여 정상적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부적응 계층)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의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김만희 외, 2012).

3.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연관성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주현정, 1998), 최근까지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측정방법도 다양하다. 사회적 지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스스로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의사소통 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변화와 위기의 연속인 인간 생활에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평형을 이루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반면 Kaplan, Cassel과 Gore(1977)는 사회적 지지를 사랑, 인정, 소속과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사람, 자신을 보살피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유용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Nolton(1994)은 사회적 지지를 부모, 교사, 친구 등의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로 정의하고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현주, 2013 재인용).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관계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 왔다(Kessler & McLeod, 1985). 구조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 관계 구조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지지의 한 측면이다.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

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이것을 사회적지수로 삼는 것이다. Barrera(1986)는 지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사회적 망(network)구조에 기초한 것과 제공된(received)지지 측정, 그리고 지각된(perceived)지지 측정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Sarason 등(1991)은 청소년의 생활 적응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즉, 사회적 지지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ohen과 Sume(1985)의 연구에서도 개인이 받는 지지가 아닌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용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측정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지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지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좌은아, 2010재인용).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변인의 지지가 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지지변인은 단일한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변인을 Thoits에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세 개의 하위변인은 첫째,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 그 자신이 사회 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 둘째,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속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조언, 지식 등을 의미하는 인지적지지(정보적지지).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 재화와 용역의 물질적 지지를 포함한다(송상철, 2001).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주 효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건강과 심리적 만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주게 된다(심민경, 2001; 이영자, 1994; Thits, 1982). 즉,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수록 그 사람의 정서적 불균형은 완화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Thoits에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정의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1)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지란 존경, 애정, 신뢰, 격려, 경청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의 행위를 포함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표출을 돕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정서적인 것을 의미한다.

2) 정보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과 적응 또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충고,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조언, 충고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사실이나 의견,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3) 물질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지원해 주고 시간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일상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 받은 직접적인 행위 또는 원조나 재원 같은 물질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4.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 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문승태·김민배,

2005).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한 가지 입장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견해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견해이다(이상원, 2004).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역할에서 주효과 혹은 완충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정(2006)은 사회적 지지를 저소득가정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며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 등은 우울을 감소(양돈규, 1997) 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가족의 지지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혹은 태도가 청소년의 우울(Lefkowitz and Tesing, 1984), 불안(Patterson, 1982; Procidano and Heller, 1983), 약물복용(Penning and Barnes, 1982), 학업성취, 공격성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있다고 보고되어 있다(Barber and Rollins 1990; Abumrind 1991a, 1991b; 이경주, 1997, 재인용).

부모로부터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우울(Barrera and Garrison-Jones, 1992; Holahan and Moos, 1987; Reinherz et al., 1989)과 비행을 보였으며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한 청소년들보다 더 적응적이다(Juang and Silbereisen, 1999, 장연정, 2002, 재인용).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으며(Avison and McAlpine, 1992) 부모의 지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적응과 낮은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나타낸다(Holahan, Valentiner and Moos,

1995).

둘째로,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한다. 또래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사회적 정서적 적응력이 뛰어나며, 자아개념도 긍정적이다(신재운, 1999). 또한 외로움이나 근심과 같은 정서의 변화에 적응적이다(Paker and Asher, 1987).

반면 빈약한 또래관계의 경험은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이미순, 1995; 1995; Kochenderfer and Ladd, 1996; Bagwell, Newcomb and Bukowski, 1998; Hechtetal, 1998). 그리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은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 보다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행동(Barnes and Windle, 1987), 사회적 위축행동 등의 부적응을 나타낸다(Ladd, 1999; 최진희, 1999; 심희옥, 2000).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의미 있는 사람의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 예로 교사의 지지가 중요함을 밝힌 연구결과가 있는데, 높은 교사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심리적 우울을 가장 적게 느꼈고, 낮은 가족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교사의 지지가 보상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DuBois et al., 199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의미하는 사함에게서 받은 지지가 가족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의 결핍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이처럼 한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 속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정보적·물질적 원조로써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개인의 보호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14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9세~24세(청소년 기본법)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72,100명 (2013년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기준) 중 4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16개 시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설문 협조를 요청, 이 중 협조를 얻은 14개 시도에 있는 21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50부가 회수 되어 77.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와 무응답 설문 41부를 제외한 309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는 남자는 총 309명 중 181명(58.6%), 여자 128명(41.4%)으로 남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으로는 19세가 38.2%(118명)로 가장 많았으며, 18세 25.6%(79명), 20세 16.8%(52명), 17세 10.0%(31명), 21세 4.9%(15명), 13세, 22세, 23세 각 1%(각 3명), 15세, 24세 각 0.6%(각 2명), 16세 0.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이 44명(14.2%)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4명(11.0%), 제주 25명(8.1%), 강원 23명(7.4%), 부산, 경남 각 22명(7.1%), 대전 21명(6.8%), 대구, 광주, 경북 각 20명(6.5%), 전남 17명(5.5%), 충북 16명(5.2%), 전북15명(4.9%), 인천10명(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

(N=309)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81	58.6
	여자	128	41.4
연령	13세	3	1.0
	15세	2	.6
	16세	1	.3
	17세	31	10.0
	18세	79	25.6
	19세	118	38.2
	20세	52	16.8
	21세	15	4.9
	22세	3	1.0
	23세	3	1.0
	24세	2	.6
지역	서울	44	14.2
	부산	22	7.1
	대구	20	6.5
	인천	10	3.2
	광주	20	6.5
	대전	21	6.8
	경기	34	11.0
	강원	23	7.4
	충북	16	5.2
	전북	15	4.9
	전남	17	5.5
	경북	20	6.5
	경남	22	7.1
	제주	25	8.1
Total		309	100.0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학업중단 시기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164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각 49명(15.9%), 중학교 2학년 26명(8.4%), 중학교 1학년 12명(3.9%), 고등학교 3학년 4명(1.3%), 초등학교 1학년 2명(0.6%),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각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기간은 2년~3년 사이가 82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74명(23.9%), 1년~2년이 65명(21.0%), 6개월~1년이 51명(16.5%), 3개월~6개월이 26명(8.4%), 3개월 이하가 11명(3.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유로는 학업흥미/동기부족이 89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결석/등교거부가 50명(16.2%), 학교생활 부적응이 45명(14.6%), 친구와의 갈등이 20명(6.5%), 부모님과의 갈등이 17명(5.5%), 경제적 문제가 14명(4.5%), 학교폭력이 13명(4.2%), 선생님과의 갈등이 11명(3.6%) 순이었으며 기타 의견은 50명(16.6%)이었다.

가족형태는 한 부모 가정(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거주)이 146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양부모가정(두 분 모두 친부모)이 130명(42.1%), 조손가정(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생활)이 13명(4.2%), 재혼가정이 10명(3.2%), 소년소녀가정이 3명(1.0%)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7명의 2.3% 이었다.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은 학교를 다닐 때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나 똑같이 신경 써 주신다가 131명(42.4%)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다닐 때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나 똑같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가 85명(27.5%),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신경 써 주신다 66명(21.4%), 학교 다닐 때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신경 써 주신다가 27명(8.7%) 순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응시경험(고졸학력 검정고시 시험을 치른 횟수)은 0회가 221명(71.5%)으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46명(14.9%), 2회가 36명(11.7%), 3회 이상이 6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N=309)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률(%)
학업중단시기	초등학교 1학년	2	.6
	초등학교 3학년	1	.3
	초등학교 4학년	1	.3
	초등학교 5학년	1	.3
	중학교 1학년	12	3.9
	중학교 2학년	26	8.4
	중학교 3학년	49	15.9
	고등학교 1학년	164	53.1
	고등학교 2학년	49	15.9
	고등학교 3학년	4	1.3
학업중단기간	3개월 이하	11	3.6
	3 ~ 6개월	26	8.4
	6개월 ~ 1년	51	16.5
	1년 ~ 2년	65	21.0
	2년 ~ 3년	82	26.5
	3년 이상	74	23.9
학업중단이유	친구와의 갈등	20	6.5
	선생님과 갈등	11	3.6
	무단결석,등교거부	50	16.2
	부모님과 갈등	17	5.5
	경제적 문제	14	4.5
	학교폭력	13	4.2
	학교생활 부적응	45	14.6
	학업흥미/동기부족	89	28.8
	기타	50	16.2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130	42.1
	한부모가정	146	47.2
	재혼가정	10	3.2
	소년,소녀가정	3	1.0
	조손가정	13	4.2
	기타	7	2.3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부모 (보호자)의 관심	학교,검정고시같음	131	42.4
	학교관심높음	27	8.7
	검정고시관심높음	66	21.4
	둘다신경안씀	85	27.5
검정고시 응시경험	0회	221	71.5
	1회	46	14.9
	2회	36	11.7
	3회 이상	6	1.9
Total		309	100.0

2. 측정도구

가. 심리·사회적 적응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심리 적응과 사회적응으로 나누어 측정되며, 이를 위해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1991)가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에서 12~17세 청소년용으로 발전시킨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 하은혜, 이경렬, 홍강의(2001)이 한국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위해 수정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선행연구들(김선경, 2002; 김형태, 2004; 노혜련 외, 1998; 박윤숙, 2006; 박현선, 1998; 오승환, 2001; 전영주, 2004)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 평가를 위해 위축(Withdrawn)과 우울/불안(depressed/anxious)항목을, 사회적응 평가를 위해 행동특성인 비행(deliquent)과 공격성(aggressivebehavior) 항목을 사용하였다.

김지현(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0이다.

1) 심리적응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 중 위축 척도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수줍어한다 등 사회적인 위축, 철수, 소극적 태도, 등을 평가하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의 정도가 크다.

우울/불안 척도는 '외롭다고 느낀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평가하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정도가 크다.

김지현(2009)의 연구에서 심리적응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4이다.

2) 사회적응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 중 비행척도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가출한다 등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높다.

공격성 척도는 말다툼을 자주한다, 자랑을 많이 한다, 남에게 못되게 군다 등 공격성, 싸움, 반항행동 등을 평가하는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크다. 표 III-3은 총 5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구성을 적응과 관련하여 평가영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김지현(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응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2이다.

표 III-3. 심리·사회적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 (N=309)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심 리 ·	심리적응	사회적 위축	7	20, 27, 30, 34, 47, (48), 51	.82
		우울/불안	16	3, 4, 6, 13, 14, 15, 16, 17, 22, 23, 24, 31, 39, 41, (48), 52	.65
		전체	22		.84
	사 회 적 · 적 응	사회적응	비행	11	11, 19, 21, 26, 28, 32, 35, 36, 40, 46, 50
공격성			19	1, 2, 5, 7, 8, 9, 10, 12, 18, 25, 29, 33, 37, 38, 42, 43, 44, 45, 49	.73
전체			30		.82
전체		52		.80	

나. 사회적 지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수정한 김인숙(1994)의 척도에서 정서적 지지(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청취) 8문항(7, 12, 13, 14, 15, 16, 17, 18), 정보적 지지(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6문항(5, 6, 8, 9, 10, 11), 물질적 지지(돈, 물건) 4문항(1, 2, 3, 4)을 사용한 송상철(2001)의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가끔 그렇다’는 3점, ‘거의 안 그렇다’는 2점, ‘전혀 안 그렇다’는 1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숙(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이다.

표 III-4.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 (N=309)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사 회 적 지 지	정서적 지지	8	7, 12, 13, 14, 15, 16, 17, 18	.86
	정보적 지지	6	5, 6, 8, 9, 10, 11	.86
	물질적 지지	4	1, 2, 3, 4	.93
	전체	18		.92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응(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 주요변인인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IV-5와 같다.

심리·사회적 적응은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으로 구분되며, 심리적응의 관찰변인은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이다. 3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회적 위축(M=1.632), 우울/불안(M=1.678)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변인들의 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므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우울/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적응의 관찰변인은 비행, 공격성이다. 관찰변인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행(M=1.494), 공격성(M=1.566)으로 보통,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 변인들의 값은 높을수록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므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응에서 보통수준의 비행과 다소 높은 공격성을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관찰변인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서적 지지(M=3.147), 정보적 지지(M=3.207), 물질적 지지(M=2.906)이다.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에 비해 다소 낮게 나와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돈이나 물질 등 직접적인 도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특정변인의 기술 통계량

(N=309)

구분		M	SD	
심리·사회적 적응 (3점척도)	사회적 위축	1.632	.486	
	심리적응	우울/불안	1.678	.431
	전체	1.665	.406	
	비행	1.494	.385	
	사회적응	공격성	1.566	.388
	전체	1.540	.359	
사회적 지지 (5점척도)	전체	1.591	.337	
	정서적 지지	3.147	1.018	
	정보적 지지	3.207	.926	
	물질적 지지	2.906	.905	
전체		3.114	.905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심리·사회적 적응과 그 하위 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응(비행, 공격성),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변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r=-.568$ 로 높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는 정서적지지($r=-.567$), 정보적 지지($r=-.528$), 물질적 지지($r=-.470$)로 높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 전체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전체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표 IV-6을 통해 볼 수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 척도는 높을수록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응적임을 나타내므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사회적으로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V-6.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 변인간 상관분석

	심리· 사회적응	심리적응	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사회적응	비행	공격성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심리·사회적응	1										
심리적응	.876***	1									
사회적 위축	.648***	.852***	1								
우울/불안	.887***	.973***	.734***	1							
사회적응	.902***	.585***	.317***	.624***	1						
비행	.742***	.416***	.183**	.473***	.871***	1					
공격성	.891***	.615***	.358***	.639***	.960***	.698***	1				
사회적지지	-.568***	-.451***	-.309***	-.493***	-.541***	-.615***	-.438***	1			
정서적지지	-.567***	-.459***	-.294***	-.510***	-.534***	-.616***	-.427***	.969***	1		
정보적지지	-.528***	-.409***	-.299***	-.438***	-.511***	-.571***	-.419***	.949***	.878***	1	
물질적지지	-.470***	-.370***	-.269***	-.401***	-.448***	-.503***	-.366***	.862***	.761***	.761***	1

*** $p < .001$, ** $p < .01$,

3.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12.101(p=.000)$ 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심리·사회적 적응은 낮을수록 적응적임을 나타내므로 이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다중 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t 값이 $-4.131(p=.000)$ 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각 t 값이 $-1.011(p=.313)$, $-.900(p=.369)$ 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적응척도는 낮을수록 적응적임을 나타낸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더 적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49.50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27$ 으로 3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701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7.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34	-.424	-4.131***
정보적 지지	.037	-.104	-1.011
물질적 지지	.028	-.068	-.900
사회적 지지	.018	-.568	-12.101***

*** $p < .001$

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8.865 ($p=.000$)로 심리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응은 낮을수록 적응적임을 나타내므로 이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으로 적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심리적응을 다중 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t 값이 -3.718 ($p=.000$)로 나타나 심리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각 t 값이 $-.089$ ($p=.929$), $-.590$ ($p=.556$)으로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응은 높을수록 부적응적이며, 낮을수록 적응적임을 나타내므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응을 더 적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7.28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12$ 으로 21.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76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8.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44	-.413	-3.718***
정보적 지지	.049	-.010	-.089
물질적 지지	.037	-.048	-.590
사회적 지지	.023	-.451	-8.865***

*** $p < .001$

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5.684 ($p=.000$)로 사회적 위축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사회적 위축을 다중 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908$ ($p=.365$), 정보적 지지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1.237 ($p=.217$), 물질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844$ ($p=.399$) 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은 심리적응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10.760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096$ 으로 9.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97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9.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57	-.108	-.908
정보적 지지	.062	-.147	-1.237
물질적 지지	.047	-.074	-.844
사회적 지지	.029	-.309	-5.684***

*** $p<.001$

라.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9.938 ($p=.000$)로 우울/불안에 부(-)의 영향을 미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우울/불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우울/불안을 다중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4.918 ($p=.000$)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562$ ($p=.575$)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557$ ($p=.578$)로 나타나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응의 하위변인인 우울/불안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35.917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61$ 으로 2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03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0.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46	-.529	-4.918***
정보적 지지	.050	.060	.562
물질적 지지	.038	-.044	-.557
사회적 지지	.024	-.493	-9.938***

*** $p<.001$

마.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11.181 ($p=.000$)로 사회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응은 낮을수록 적응적임을 나타내므로 이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사회적으로 적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사회적응을 다중 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3.301 ($p=.001$)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외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각각 -1.502 ($p=.134$), t 값이 $-.825$ ($p=.383$)로 나타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은 높을수록 부적응적임을, 낮을수록 적응적임을 나타내므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응에 더 적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42.538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95$ 으로 29.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94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1.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37	-.347	-3.301**
정보적 지지	.041	-.158	-1.502
물질적 지지	.031	-.064	-.825
사회적 지지	.019	-.541	-11.282***

** $p<.01$, *** $p<.001$

바.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13.652 ($p=.000$)로 비행에 부(-)의 영향을 미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비행을 다중 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4.864 ($p=.000$)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1.090 ($p=.277$)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804$ ($p=.422$)로 나타나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응의 하위변인인 비행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기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63.557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85$ 으로 38.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9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37	-.478	-4.864***
정보적 지지	.041	-.107	-1.090
물질적 지지	.031	-.058	-.804
사회적 지지	.019	-.615	-13.652***

*** $p<.001$

사.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t 값이 -8.525 ($p=.000$)로 공격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과 공격성을 다중 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정서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2.065 ($p=.040$)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1.502 ($p=.134$)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722$ ($p=.471$)로 나타나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응의 하위변인인 공격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공차한계값을 확인해본 결과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4.153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92$ 으로 19.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993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N=309)

독립변인	표준오차	β	t
정서적 지지	.043	-.232	-2.065*
정보적 지지	.047	-.169	-1.502
물질적 지지	.036	-.060	-.722
사회적 지지	.022	-.438	-8.525***

* $p<.05$, *** $p<.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심리·사회적 적응(심리적응, 사회적응)의 변인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높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리적응, 사회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부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의미 하며,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김명숙, 김성봉, 김도영, 허철수, 2012; 이준상, 이정희,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심리적응,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과 사회적응(비행, 공격성)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이 높았으며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이 낮아졌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응(비행, 공격성)을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우울/불안, 사회적응, 비행,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

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을 도우며,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 특히 사랑,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개입에 있어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되, 애정과 관심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반면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정보적 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며, 물질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본 연구에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에서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4.5%(14명)으로 많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심리적응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한 측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회피, 사회적 고립, 타인과의 사회성 기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 발달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함께 전문적 심리상담 및 대인관계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검정고시에서 불합격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얻은 분석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결론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심리적응,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낮췄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리적응(사회적 위축, 우울/불안)과 사회적응(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을 높이고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낮췄다. 하지만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사랑, 위로, 애정, 관심 등 정서적 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업중단 요인, 학업중단 예방, 정규교육과정으로의 복교 후 적응 등 학업중단을 예방, 복교후의 재적응에 관한 연구주제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학업중단 상태를 유지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접근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넷째,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밖청소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설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한 기틀을 마련,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은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 측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적응의 시기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관적인 보고를 통하여 본 연구가 실시되었으므로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으므로 변인간의 관계를 가족, 친구 등에 의한 평가와 같은 자료 수집방법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차후 초졸,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간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검정고시 학원 수강생, 대안교육 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에서 공부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 이들을 포함시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지원체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해 친구, 가족, 지역사회 등으로 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6). **교육복지종합대책**. 서울: 교육부.
- 교육통계서비스(2015).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5년 2월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에서 2015년 5월 29일 인출.
- 구분용, 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05-309.
- 김만희, 전주성, 김주훈, 안성훈, 서순영(2012). 평생학습계좌제와 검정고시 연계를 위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및 평가지표 개발연구.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청소년시설환경**, 12(2), 67-68.
- 김명숙, 김성봉, 김도영, 허철수(2012). 조선족 결손가정아동의 사회적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비교교육연구**, 22(1), 99-119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24-325.
- 김신희(2008).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허철수(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영희(2014).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정(2004). **청소년 개인특성,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1). **중·고등학교 복학생 적응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9).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에 대한 경제적 효과 추정. *西江經濟論集*, 40(3), 63-94
- 문승태, 김민배(2005).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간의 구조방정식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37-55.
-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 박미정(2004). **대안학교의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제도권 내 대안교육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 박현선(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박현주(2013).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12-219.
- 성운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손지현(1999). **소아암 환자 형제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상철(2001).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심민경(2001).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2007). 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캠프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12, 109-133.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정(2006).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소래(1998). 중도탈락학생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166-170.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유지선(2007).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여상(1994).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

-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류방란(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근창(2003). **학교중퇴 청소년 중퇴이후 적응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상원(2004). 재가 장애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연구. **임상사회사업기**, 1(2), 147-166.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223.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2007).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상, 이정희(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3(3), 207-227
- 이혜련, 최보가(199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 75-85.
- 임세민(2014).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지연 아동의 미술치료 개별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정(200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영(2003). **복교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규석, Bronson(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한국아동복지학**, 9(1), 206-207.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필 외(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92-995.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좌은아(2010).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인식 및 정서표현성이 학업중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신(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협 외(2004).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태영철(2004).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의 실제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兒童學會誌*, 25(2), 121-132.
- 한준상(1997). 중퇴생의 진로 선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진로교육연구*, (7), 115-133.
- 홍봉선, 남미애(2013). *청소년복지론*. 경기: 공동체.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Bhaerman, R. & Kopp, K.(1988). *The school's choice: Guidelines for dropout prevention at the middle and junior high school*. (Dropout Prevention Series). Columbus, OH: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 Catterall, J. S. (1987). On the social costs of dropping out of school. *High School Journal*, 71, 19-30.

- Chavez, E. L., Oetting, E. R., & Swaim, R. C. (1994). Dropout and delinquency: Mexican-American and Caucasian non-Hispanic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1), 47-55.
- Cicchetti D, Toth SL. (1991). The making of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ist. In: Cantor J, Spiker C, Lipsitt L, editors.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Training for diversity*. Ablex; Norwood, NJ; 34 - 72.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uBois, D., Felner, R., Brand, S., Adan, A. and E. Evans.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2 -64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58.
- Kessler, R. C., Price, R. H., & Workman, C. B.(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Nolten, P.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arker, J. G. and S. R. Asher. 1987. Peer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PsychologyBulletin. 102*, 357-389.
- Rumberger, R. W.(199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 101-121.
- Sarason, B.r., Pierce, G. R.,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A., & Poppe, L.(1991).Perceived socialsupport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arason, I.G., Levine, H.M., Basham, R.B., et al.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T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Abstra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School Dropout Youth Preparing for
High School Degree Qualification Examination**

Lee Young Cha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of the out-of-school youth. The subject of study is as follows.

The subject of study 1. Does the social suppor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out-of-school youth?

Three hundred and nine out-of-school youth preparing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high school degree from 21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 14 cities all across the nation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for this study.

Self-report instruments were used to collect the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data of the out-of-school youth. To analyz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PSS Statistic 18.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of out-of-school youth, as the social support increases,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out-of-school youth increased, and the depression/anxiety, delinquency and aggressive behavior decreased.

Second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lower factors of the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on the lower factor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anxiety) and social adaptation (delinquency, aggressive behavior), as the emotional support increases,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increased and depression/anxiety, delinquency and aggressive behavior decreas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It means the emotional support like love, comfort, affection and care needs to be focused on to help the out-of-school youth to adapt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help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out-of-school youth appropriately, even when they fail to pass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high school degree, so that they are able to carry on to get over their difficulty and at last, acquire the high school degree qualification.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청소년 여러분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의 연구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히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귀하의 개인에 대한 비밀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 11.

지도교수 : 최보영

연구자 : 이영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과정)

문의사항 : ahah3525@hanmail.net

☞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를 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현재 나이는 몇 세 인가요?

(세)

3. 처음 학업중단을 한 시기는 언제 였나요?

- ① 초등학교 1학년 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4. 학교를 그만둔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현재 기준을 기준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은?)

- ① 3개월 이하 ② 3~6개월 ③ 6개월 ~ 1년
④ 1년 ~ 2년 ⑤ 2년~3년 ⑥ 3년 이상

5.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선택)

- ① 친구와의 갈등 ② 선생님과 갈등 ③ 무단결석, 등교거부
④ 부모와의 갈등 ⑤ 경제적 문제 ⑥ 학교폭력
⑦ 학교생활 부적응 ⑧ 학업흥미/학업동기부족 ⑨ 기타()

6. 귀하의 가족형태는?

- ① 양부모가정 (두 분 모두 친부모)
② 한부모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거주)
③ 재혼가정
④ 소년, 소녀가정
⑤ 조손가정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생활)
⑥ 기타 ()

7.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은?

- ① 학교 다닐 때나 검정고시 준비할 때나 똑같이 신경 써 주신다.
② 학교 다닐 때가 검정고시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신경 써 주신다.
③ 검정고시 준비할 때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신경 써 주신다.
④ 학교 다닐 때나 검정고시 준비할 때나 똑같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

8. 지금까지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 경험은? (고졸학력 검정고시 시험을 치른 횟수)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 다음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에 대한 문항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숫자에 √표 해주세요.

질문항목	전혀 안 그렇다	거의 안 그렇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빌려 준다.	1	2	3	4	5
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다.	1	2	3	4	5
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1	2	3	4	5
4. 나의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도와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	2	3	4	5
6.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준다.	1	2	3	4	5
7.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1	2	3	4	5
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1	2	3	4	5
9. 나의 주위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1	2	3	4	5
1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1	2	3	4	5
1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상의해 준다.	1	2	3	4	5
1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	1	2	3	4	5
13. 나의 주위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1	2	3	4	5
1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1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1	2	3	4	5
17.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1	2	3	4	5
1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현재 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해 주세요.

질문항목	전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2.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3.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잘 운다.	1	2	3
5. 남에게 못되게 군다.	1	2	3
6. 일부러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1	2	3
7.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1	2	3
8.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9.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10. 학교(학원, 가정, 직장)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11.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1	2	3
12.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 한다.	1	2	3
13.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1	2	3
14.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1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16.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17.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18.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1	2	3
19.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1	2	3
20.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21.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1	2	3
22.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1	2	3
23.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24.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25.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1	2	3
26.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27.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28. 가출한다.	1	2	3
29. 고향을 많이 지른다.	1	2	3
30.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1	2	3
31.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불안해 한다.	1	2	3
32. 불을 지른다.	1	2	3
33. 으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	2	3
34. 수줍어한다.	1	2	3
35. 우리 집의 물건을 훔친다.	1	2	3
36.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1	2	3
37. 고집이 세다.	1	2	3
38.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39. 나는 의심이 많다.	1	2	3
4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쓰기도 한다.	1	2	3
4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2.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43. 남을 잘 놀린다.	1	2	3
44. 나는 성미가 급하다.	1	2	3
45.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1	2	3
46.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학원, 대안학교, 직장)에 무단결석을 하기도 한다.	1	2	3
47. 기운이 별로 없다.	1	2	3
48.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49.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1	2	3
50.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것 이외의 약물을 사용한다.	1	2	3
51.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1	2	3
52. 나는 걱정이 많다	1	2	3

